

# 송강호 x 이병헌, '비상선언'으로 네번째 만남

### 한재림 감독 차기작...내년 상반기 크랭크인

### 항공 재난 소재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돋보여

한재림 감독의 차기작 '비상선언' (제작 우주필름/공동제작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씨네주)에 배우 송강호와 이병헌이 출연을 확정했다.

송강호와 이병헌은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하는 '비상선언'으로 재회한다. 송강호와 이병헌의 만남은 '공동경비구역 JSA(200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밀정(2016)' 이후 네번째 호흡으로 신선한 소재와 한재림 감독에 대한 신뢰로 출연이 성사 됐다. '비상선언'이란 항공기가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장의 판단에 의해 더 이상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언하는 비상사태임을 뜻하는 항공용어이다. 항공 재난을 소재로 한 이번 영화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와 등장 인물들의 다채로운 캐릭터가 돋보이는 본격 항공 재난 드라마다.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은 한재림 감독은 2005년 '연애의 목적'으로 대중상 신인감독상과 청룡영화제 각본상을 휩쓸며, 연출 데뷔와 동시에 영화계의 이목을 집중시켰

다. 이후 영화 '우아한 세계'로는 누아르의 새 지평을 열며 청룡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영화 '관상'에서는 적재적소의 풍자와 감각적인 연출로, '더킹'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촬영 기법 도입과 깊은 메시지가 있는 통쾌한 스토리로 '최고의 스토리텔러'라는 호칭을 얻었다.

올해 5월 개봉한 영화 '기생충'으로 칸 황금종려상 수상과 네 번째 1000만 작품의 기록을 세운, '명실공히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하는 배우' 송강호와 할리우드 진출뿐 아니라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평연기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자타공인 최고의 배우' 이병헌의 만남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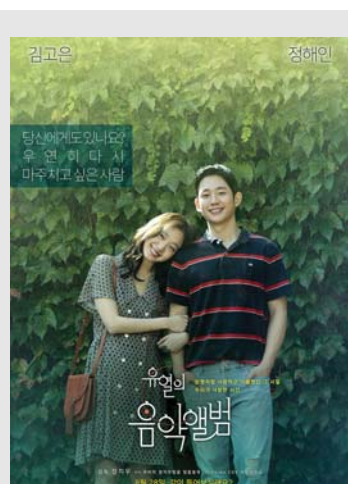


을 한층 높인다.

웰메이드 영화로 각광 받아 온 한재림 감독과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두 배우의 만남 만으로도 역

대급 라인업이 예상되는 '비상선언'은 올해 프리프로덕션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 예정이다.

뉴스1



### '유열의 음악앨범'

### 첫날 17만명 봤다

### 역대 멜로 영화 최고 오프닝

레트로 감성 멜로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이 대한민국 영화 사상 멜로 장르로는 무려 7년 만에 개봉 첫날 최다 관객수 기록 경신과 함께 새로운 박스오피스 1위 작품 탄생을 알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맞았다.

지난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일일 박스오피스 기준, '유열의 음악앨범'은 개봉 첫날인 이날 17만3562명의 일일 관객수를 동원하며 누적 관객수 19만3348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정상에 등극했다. 이는 역대 멜로 영화 사상 최초의 흥행 신기록으로 무려 7년 만에 역대 멜로 영화 최고 오프닝 성적을 갈아치운 기록이다.

중전 역대 멜로 영화 최고 오프닝 흥행 기록은 송중기, 박보영 주연의 역대 최고 멜로 흥행작 '늑대소년'으로 지난 2012년 10월31일에 세운 개봉 첫날 관객수 12만8787명 기록을 가볍히 뛰어넘었다.

더불어 '유열의 음악앨범'은 '건축학개론' 오프닝 기록 6만6580명 및 지난 해 282만명 관객을 동원한 2018년 멜로 영화 최고 흥행작 '너의 결혼식'의 9만9411명 및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8만9772명 개봉 첫날 관객수 기록들까지 모두 2배 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특히 '유열의 음악앨범'은 '너의 결혼식' 개봉 이후 무려 1년 만에 멜로 영화가 박스오피스 정상에 차지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 '유열의 음악앨범'은 흥행 전초전인 예매에서도 압도적 예매율 1위까지 기록하고 있다.

뉴스1

뉴스1

## 강남 ♥ 이상화 "10월12일 결혼...축복 부탁"

### SBS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 통해 인연



가수 강남(32)과 스케이트 선수 이상화(30)가 결혼한다.

29일 강남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와 이상화 소속사 본부엔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 이상화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식은 오는 10월12일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강남, 이상화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만큼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과 이상화는 지난 3월16일 정식으로 교제를 인정하고 공개 커플이 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SBS '정글의 법칙 in 라스트 인도양'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뉴스1

## 김성령 측, 조국 후원 여배우?

### "관련 없다"...강경 대응 시사

배우 김성령 측이 정치인 후원 여배우 설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29일 김성령의 소속사 와이엔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최근 배우 김성령과 관련된 루머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SNS,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 동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 역시 김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인 김성령



을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와 관련 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선처나 협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뉴스1

## 김수현, '호텔 델루나' 특별출연한다 "이지은·여진구 인연"

배우 김수현이 '호텔 델루나'에 특별출연한다.

29일 tvN 주말드라마 '호텔 델루나' 관계자는 뉴스1에 "김수현이 특별출연을 할 예정이다. 이미 촬영은 진행했다"라며 "어떤 역할로 나올지는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특별출연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김수현씨가 '호텔 델루나'의 연출자(오충환PD), 출연진 이지은씨, 여진구씨와도 함께 작업한 적도 있고 가까운 사이"라고 밝혔다.



김수현은 오충환PD가 SBS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할 때 인연을 맺었으며, 이지은과는 KBS '프로

듀사', 여진구와는 MBC '해를 품은 달', SBS '자이언트'에서 만난 바 있다. 지난 7월 김수현은 '호텔 델루나' 촬영장을 찾아가 커피차를 선물하는 등 여전한 의리를 보여준 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 7월 1일 전역했으며, 현재 차기작을 고심하고 있다. 전역 후 대중과 만나는 것은 이번 '호텔 델루나'가 처음이다.

뉴스1

## 임채무, 데뷔 46년만에 첫 소속사 계약

배우 임채무가 데뷔 46년 만에 배우 전문매니지먼트와 생애 첫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9일소속사 드림스톤엔터테인먼트는 "중견배우의 아이콘 임채무와 한식구가 되어 기쁘다"라며 전속계약 소식을 밝혔다.

임채무는 80년대 노주현, 한진희와 함께 트로이카 남주시대 대표로 MBC '사랑과 진

실' 국민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의 다수 인기드라마에 출연했다. 더불어 광고에서도 2002년 월드컵 모레노 주심 패러디한 돼지바 광고로 코믹한 이미지를 얻었다.

그동안 임채무는 1인 기획사로 활동하면서 MBC연기대상(최우수연기상), MBC방송연예대상(특별상), 대한민국광고모델대상(모델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